



머리글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죽음 앞에선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듣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상에 달려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 위에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 믿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우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루카 23,43)”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루카 15,7).”

매달 소년원에서 미사를 하기 전 고해성사를 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이 진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또 프로그램이나 교리 시간에 아이들이 기도를 쓰는 시간에 아이들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가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되이 나아갈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도이게 약속하셨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또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나뉘지 않고 하나의 교회임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위령성월 맞이하여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회를 잊지 않고 한다면 그들도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우리와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찾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하는 봉사와 후원이 하느님 나라를 위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



9월 17일(수)~19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5개의 위원회 사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도의 성지를 순례하며, 신앙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사회사목국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봉사자 연수



9월 20일(토)~21일(일) 대전 정하상교육회관에서 한국가톨릭교정사목 전국협의회 봉사자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희년과 교정사목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서울대교구는 12명의 대표봉사자가 참석하여 전국 교정사목의 봉사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교정사목에 관한 강의를 듣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정시설에 주님의 사랑을 직접 전하는 봉사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밀 가족야유회



9월 24일(수)~25일(목) 강원도 속초로 해밀 가족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해밀 가족들은 속초 바다와 낙산사 등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푸른 하늘과 짙은 초록 잎들로 인해 마음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성심회 총회



9월 27일(토)~28일(일) 대전 정하상교육회관에서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천주교 신자 교도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용자들을 위해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도관들의 신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교도관이 되기를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및 제65차 임시총회



10월 13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최남식 신부(살레시오회) 주례로 월례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번 미사에는 송정섭 시몬 신부와 미리암 수녀의 축일 축하식도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생활하였던 형제의 클라리넷 연주가 있었습니다. 송정섭 신부와 미리암 수녀는 형제의 연주에 뜻깊은 축일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 후 제 65차 임시총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이사장 유경춘 주교의 선종으로 서울대교구에서 사회사목국장 윤병길 신부에게 한시적 이사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원 변경의 건이 있었습니다. 윤병길 국장 신부는 "특수 사목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신부들을 위해 뒷바라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부들이 현장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교정사목의 신부들을 격려했습니다.



참회와 속죄를 통한 인간성의 회복

오정숙 마리아 막달레나 /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평화를 빕니다!

저는 2024년 3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12월에 남부구치소에 배정받은 신출내기 오정숙 막달레나입니다. 제가 이런 교정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나이 60을 넘어서면서 막연하지만, 인간의 올바른 삶에 대해 고민할 때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본래 성선설 또는 성악설 둘 중 어느 쪽이 더 비중을 차지할까? 각각 성선설을 주장한 성인과 성악설을 주장한 성인들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년기에 이유 없이 먼저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동은 유순하여 친구를 배려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를 보아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주교 신자로서 수용자들을 대할 때마다 나다니엘 호오돈의 '주홍 글씨'라는 소설을 떠올리며, 사회적 낙인(Scarlet Letter)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의 청교도 사회에서의 공개적인 수치와 엄격한 처벌 중심의 도덕규범을 배경으로 하는데 주인공 헤스터프린은 간통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가슴에 붉은색 글자를 달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비난과 배척을 받지만 동시에 참회와 속죄를 통한 인간성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저지른 잘못이나 범죄가 평생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태그(tag) 즉, 사회적 낙인을 의미하는 이 주홍글씨는 단순한 문학작품의 제목을 넘어 개인과 사회 그리고 도덕적 잣대 사이에서 오늘을 사는 저에게도 다시 한번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쟁깁니다. 그래서 미약하나마 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짓고 범죄자가 된 그들이 측은하기도 하고 자그마한 위로의 눈길을 전하고자 교정사목에 매진하게 됩니다. "철창 속에 갇힌 그들 새장 속에 갇혀 사는 나 자신, 특별히 다를 것도 없고 순간의 선택과 판단이 인생의 바운더리(Boundary) 점에 도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유명 검사는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범죄자의 사연을 듣고 조사를 하다 보면 충분히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겠다고, 나 자신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억울하고 분통한 범죄가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미약한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주님의 모상을 본떠 만든 인간으로서 자신의 죄에 대한 끊임없는 참회와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의 범죄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저는 지난 10개월의 짧은 구치소 활동을 했지만, 10여 년이 넘게 봉사하시는 선배 자매님들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반추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그 훌륭한 태도를 본받고 인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미약한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말 한마디를 잃지 않는 자세로서,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주신 성령의 자비에 감사드리며, 읽어주신 분들에게도 성령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前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루카 8,1-3).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요한 9,25).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마르 15,47).

예수님께서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 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마르 16,9-11).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시달린 일곱 마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일곱 마귀에 시달려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병에 시달렸는지, 혹은 사회적 혐오로 인하여 공동체와 격리된 상태였는지 복음서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보다 더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율법 위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이, 특별히 일곱 마귀에 시달렸던 여성이 예수님 생애에 함께 하였던 것을 복음서는 이름을 푹뚝히 적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곱 마귀에 시달렸던 것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고, 고통과 모욕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로마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도 감히 무덤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선포하는 ‘사도들의 사도’(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서한, “여성의 존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승 속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끊임없이 구설수에 시달렸습니다. 창녀였다는니, 예수님과 연인관계였을 수 있지 않느냐며 여러 오해 속에서 평가절하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부활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복음 구절에서마저도, 일곱 마귀에 걸렸던 여자라고 언급하며, 단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다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전달자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듯 뉘앙스를 풍깁니다.

출소자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이후 느끼는 자책과 또 괴로움,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구치소,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을 통해서 체험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남다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해주신 하느님을 깨달으며 변화된 삶을 살면서 부활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여전히 범죄자로 바라보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에서의 보여주는 복음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믿지 않으며,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과거에만 관심과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 하느님은 사회 안에서 차별받고 혐오 받는 약자들, 소수자들, 목소리 작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그저 우리끼리의 친교만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 출소자들,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약자들,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중국인, 장애인, 가난한 이들, 노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오늘의 마리아 막달레나가 전해주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이전 년 전에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하나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녀가 어떤 사람이고, 죄인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두드린 문

하00 / 기쁨과희망은행 창업대출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식당 일을 1년 하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다른 일들을 알아보던 중 나 이 제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방일과 몸을 많이 쓰는 일들밖에 없어서 좌절하던 중에 사업장을 보게 되었고 다들 힘들다고는 하지만 더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결심했습니다.

예전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때 미용과 유기견들을 위한 애견 카페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 발판이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으로 1, 2급을 취득하게 되면서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카페가 많기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을 오래 해왔지만, 일단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기본 매너는 준비되어 있었고 강의들도 많이 듣고 실제 만들어보고 주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창업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사회복지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창업하려고 했지만, 손목건초염이 심해져서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어, 이 가게에 전념하자는 생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과 물가 상승으로 힘들었지만, 기쁨과희망은행에서 대출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중간중간 피부관리실 컨설팅해 주며 소소한 소득과 발품을 많이 팔아서 비용을 아꼈습니다.

힘든 시간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배워서 준비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마음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신 좋은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저의 자랑입니다. 소중한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사회에 한 발짝 더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제 마음에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건강관리 잘 하면서 저런 곳도 살릴 수 있다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창업에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대접하고 정성으로 만들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꾸준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만함과 쓸데없는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힘든 고비들도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습해 보면서 부딪히고 긍정적으로 배우며 지켜내려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크겠지만 틈틈이 자기 계발 및 제 경력을 이용한 원데이클래스나 강의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창업은 절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창업할 때 어떤 일이든 절대 쉬운 게 없지만, 카페 창업 준비는 직접 사용해 보고 맞는 것을 찾아 최종 선택하고, 많이 다니시고 많이 드시고 많이 배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떤 것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자기 능력과 건강이 어디까지 허락할 수 있는지 꼭 챙겨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두드린 문이 열렸을 때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막연함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도움 되는 사람, 저를 보고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인생은 많은 경험과 연륜을 쌓아오며 살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 많은 분노와 억울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생활을 겪으며 여러 사람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언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
 나로 인해 피해와 괴로움을 겪었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곳에 들어왔지'라고 생각하며,
 저를 이곳에 보낸 검사와 판사를 원망만 하였던
 저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았을 때 바깥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나태하고 분노와 쾌락적으로 생활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특히 교만함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
 저의 죄가 깨끗해지게 됨을 소망합니다.

※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예비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2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행사 알림

- 11월 3일(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 미사 / 광탄성당, 광탄 나자렛 묘원
- 11월 3일(월)~7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수원구치소 남사
- 11월 10일(월)~14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의정부교도소 남사
- 11월 15일(토)~16일(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양재동성당
- 11월 17일(월)~20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남사
- 11월 19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1월 21일(금) 제34차 이사회 / 교정사목 센터
- 11월 25일(화)~26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인천구치소 남사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사
- 11월 29일(토)~30일(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 / 구로1동성당



고봉중고등학교 도서 기부 안내

고봉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를 기부받고 있습니다. 살레시오회에 도서를 보내주시면, 정리 후 고봉중고등학교로 전달됩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택배 부탁드립니다.

▶ 도서 보내실 곳 : (07440)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70길 7, 살레시오 수도원
고봉중고등학교 담당자 앞 / 전화 : 02-831-3068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새 책 한정, 중고 책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09/16~10/15)

2025년 9월~10월에는 강신금 엘리사벳, 고란 빅토리아, 권호경 알마, 김광미 엘리사벳, 김귀숙 데레사, 김성남 데레사, 김영아, 김혜진 루시아, 박다영, 서점숙, 소재준 마르티노, 이근호 미카엘, 이순재, 조해민 크리스티나, 차영돈, 최미리 베로니카, 허순희 도미니카, 아현동 성당 강미애 아녜스 외 75명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고영오, 노충환, 이완경 마리스텔라, 이윤진, 아현동성당 강명연 엘리사벳 외 47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